

다시 만들어 가는 시간

추천인-정혜숙 / 강북삼성병원 사회사업실



27년 전 윤복동(60세 당뇨) 할머니는 5년 간 동거한 사랑했던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 온 남자는 윤복동 할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1남 1녀를 두었고 할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다른 두 아이를 유산시키는 여자만의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잃은 모정을 참아 낼 수 있었고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껴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들의 사랑에 '결혼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그저 작은 행복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주 우연히 할머니의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 그것도 아들까지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말입니다.

유복한 집안의 장녀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할머니는 17세 경 아버지의 사업부도와 뒤이은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왔은 집안을 돕고자 공장 등을 전전하며 장녀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고 금지옥엽 귀했던 몸은 어머니를 비롯한 다섯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삶의 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힘겨운 생활을 해오던 중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침 기댈 언덕이 필요했던 할머니는 그 남자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남자 또한 할머니에게 '언덕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남자의 동거는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소박한 행복을 느꼈던 할머니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가족을 이룬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심한 배신감과 상처를 어찌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남자의 '이혼 하겠다'는 말을 뒤로 한 채 할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고 지금까지 미혼인 채로 오로지 두 아이만을 위해 살아 오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든든한 엄마가 되기 위해 할머니는 막노동을 비롯하여 식당 주방일, 청소 등 안 해본일 없

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뼈저리게 느꼈던 할머니는 이후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조금씩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6년을 고생 고생해가며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자꾸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매일같이 사이다를 몇 병씩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는 복막염 수술을 받게 됐고 외중에 처음으로 자신이 당뇨를 앓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을 알기에 할머니는 자신이 당뇨병환자라는 사실에 공포감이 밀려 왔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과 비통함, 세상에 대한 억울함을 할머니는 혼자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싫었고,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할머니는 그저 그렇게 살아 온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더욱이 여자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기에 세상은 험난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에 대해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내 몸 챙기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고 미안한 일은 잘 먹이지 못하고, 등록금도 제 때 내주지 못하고... 결국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해 지금껏 고생하는 애들을 보면 눈물만 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머니의 딸(34)은 결혼하여 초등학교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하지만 층층이하에 남편의 적은 수입으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딸

노릇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당 종업원을 하고 있는 아들(31)이 유일한 수입원이나(약 100만원/월) 할머니 월세(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와 병원비(30만원/월)를 제하고 나면 최저 생계비도 안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어서 아들 앞에서 고개도 들 수가 없어요. 요즘엔 결혼도 안 하겠다 하고... 사실 결혼을 한다 한들 어느 여자가 우리 같은 집에 시집오겠나요”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불편한 몸 보다는 자식의 앞길을 막는 ‘못난 어미’라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당뇨합병증으로 백내장 수술(양안)과 3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혈압, 그리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신체의 한계 때문에 할머니의 우울증세는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로 혼자 지내다 보니 식단조절도 하지 않고 대인관계도 상당히 협소하여 가끔씩 다니는 산책도 아들이 적적하다고 사다 준 애완견하고만 다니는 등 할머니의 주 생활범위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내 몸과 사는 게 이러다 보니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들이 내 환갑 때 친구를 부르라고 하지만 돈도 그렇고 난 부를 친구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뇨인의 도움을 모아서

그 동안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할머니도 마음 속에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들과 섞여 큰 소리로 웃고도 싶으셨나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몸은 쇠약해져가지만 반대로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삶의 즐거움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가난하고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어머니였지만 자녀들은 할머니를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가정은 아주 적은 부분만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한정되어 강아지에게 애정을 쏟고 계시지만 할머니는 더

많은 대상을 향해 애정을 쏟고 함께 나누길 조심스럽게 바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할머니 자신은 맛있는 음식을 제한 없이 드실 수는 없지만 자신이 만든 음식을 이웃과 나눌 때 행복하다며 웃으십니다.

바로 지금이 할머니에게 여러분들의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 강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수 있게, 그리고 할머니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만들어 가실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실 곳 : 1002-032-049937 (우리은행/ 예금주 : 윤복동)

문 의 : 02-2001-2886 (강북삼성병원 사회사업실)

함께 하면 **큰 힘**이 됩니다.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안내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공익성 기부금 손비 인정단체로, 기부해 주시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보내주시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기부금 송금계좌 : 우리은행 195-138439-13-001(예금주: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문의전화 : 02-771-8542

-기부금공제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10%

※관련법규 : 본 협회에 기부해주시는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1항 제 3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되어 손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인단체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www.dangnyo.or.kr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는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모토로 우리나라 400만 당뇨인의 건강, 권익,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